

연덕교회 송구영신 예배

20:00 예배부름	다함께
찬 송“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”.....“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 온것“	다함께
침묵기도	다함께
성경봉독 [요한복음 17장 2절~3절]	다함께
설 교	사도신경 14_“나는 영생을 믿습니다”	김태완
찬 송 [“선한능력으로”]	다함께
	□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기도 □ 공동체를 위한 기도	
주기도문	다함께

사도신경 14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.

1.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
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2.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
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:2~3

■ 생명에 대한 세 가지 의미

1) 푸쉬케 : 생물학적인 생명

“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
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
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” 마 6:25

“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
목숨을 버리노라” 요 10:11

2) 비오스 : 살림살이, 생명 유지의 방편

“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(살림살이)
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”요
일 2:16

“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
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” 눅 15:2

3) 조에 : 하나님이 주신 생명

“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
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” 요6:35

■ 영원(아이온)이 가지는 네 가지 의미

1) 영원한 / 시간적으로 영원하다

“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,
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”
요 11:25~26

공공서식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.

2) 종말적인 / 그때, 그 장소(천국)에서 산다

“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,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”(계 21:3~4)

3) 신적인 /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산다.

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:2

“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” 요17:3

맘몬은 푸시케(건강)와 비오스(풍요)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유혹하지만, 우리의 생명은 조에(하나님과의 관계)이다.

4) 우주적인 /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며 산다.

“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” 요3:16

■ 영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

- 예수님처럼 살기

<함께 생각해 보기>

1.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인가요? 어느 순간 영생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?
2.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, 풍요롭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3. 영원한 생명의 네 가지 의미 중 우리가 강조한 부분, 간과한 부분은 무엇일까요?
4. 2021년 교회 표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였습니다. 우리 교회가 살렸던 생명은 무엇일까요?
5. 영생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?
6. 기타

공동체를 위한 기도

- 언덕의 각 지체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
- 한국교회가 건강과 풍요의 생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도록
- 코로나 19를 잘 극복하고, 코로나 이후 시대를 잘 준비하도록
- 한금수 권사, 홍현순 권사, 김태성 장로, 박종식 성도, 오명아 집사의 건강회복을 위해서